

# “채용·공장건설 등 배제된 노동계 불신부터 해소해야”

광주시 광주형일자리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무슨 얘기 오겠나

대한민국 첫 ‘노(勞)·사(使)·민(民)·정(政)’ 상생사업인 ‘광주형 일자리’가 백적 간두에 서 있는 모양새다.

지난 2일 한국노총 등 노동계(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에 이어 현대차를 주축으로 한 투자 주주들의 사업 정상화를 조건으로 한 최후통첩, 3454억원에 이르는 추가 차입금 확보 불투명,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 경제위기 속 현대차 노조의 투자 반대 촉구 등 시간이 지날수록 악재만 쌓여가고 있다.

보다 못한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경제계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나서 ‘노동계의 회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22일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추진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선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한 노동계의 복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공정화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박현욱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임동화 광주시민센터 대표, 양희창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대표, 서옥희 광주YWCA사무총장, 문기전 광주YMCA사무총장,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박재만 상임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

시민사회단체 대표 10명 참석  
광주시·현대차 태도 전환 촉구  
시·정치권 등 4자 만남 의견 모아  
노동계 참여 여부는 불투명

해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좌초위기를 맞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먼 산 보듯 할 수 없어 최근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났는데, 광주시에 대한 불신의 벽이 강하다는 걸 느꼈다”고 노동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노동계는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남에서 노사민정 협의체 주축인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해 강한 불신과 함께 사업 불참의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단 노동계가 공식 대화기구에 복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광주시, 정치권의 4자 간 비공식 또는 공식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노동계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단 노동계의 얼어붙은 마음부터 녹여내는 게 급선무다. 노동계는 표면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쌓인 불신의 마음 이 더 큰 걸림돌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먼저 노사상생형 사업인데도, 노동

계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현대차의 태도 개선이 요구된다.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의장도 지난 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식에서 “현대차와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며 “이게 무슨 노사상생형 사업이냐”고 현대차의 닫힌 태도를 비판했다. 노동계 내부에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분노도 크다. 인력 채용과 공장을 건설하면서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한 것을 놓고 서운함을 넘어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정 부분 노동계의 참여를 확보해 주는 묘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1대 주주인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채용과 공장건설은 기업의 고유 업무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 노동계의 돌아선 마음을 돌려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내년 9월까지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라인을 구축해 현대차로부터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것으로, 광주시와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내년까지 정규직 1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총 5754억원이 투입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총 37개 투자자로 구성됐으며, 자기자본금 2300억원 중 광주시 483억원(21%·1대 주주), 현대차 437억원(19%·2대 주주) 등을 투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배려와 연대의 끈 놓지 않은 국민에게서 희망 배워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경제 살리기 총력 다할 것”

취임 100일 맞은 정세균 총리  
코로나 방역 사령탑 역할 특출  
“국민 일상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1월 14일 취임한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돌아보면 지난 100일은 제게 ‘배움의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는 제게 배움의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은 제게 스승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배려와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인과 방역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서 헌신을 배웠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서 열정을 배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을 당시 대구에 상주했던 때를 회상하면서는 “대구에 멈춰선 것 같았다”며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사·도민과 의료진을 보면서 잠을 이

루지 못한 날이 많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정 총리는 “누구보다 상처받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을 대구·경북 주민들은 마스크 수급이 가장 불안했던 때마저 질서와 침착함을 보여줬다”며 “대구의 품격과 경북의 의연함은 코로나19 극복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5부제 도입과 병상 확보·생활치료센터 도입으로 치료체계 재구축,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추진 등의 아이디어와 결단은 그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최근의 코로나19 안정세와 관련, “어제는 서울·경기·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1명도 없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앞으로의 각오를 밝힌 뒤, “일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사 협력을 이끌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 취임 때 말씀드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도 희망과 헌신, 열정의 씨앗이 결실을 맺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빈틈없는 방역으로 국민의 일상을 반드시 되돌려드리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그동안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저를 믿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준 공직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 총리를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정도 안정된다면 최일선에서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했던 정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자부 장관 출신의 경제통인 정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사태 위기 국면에서 현장에서 뛰어난 위기 관리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후폭풍에 의한 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경제통인 정 총리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술관·박물관 운명은?



김은영의  
‘그림 생각’

#### (309) 상상의 박물관

“만약 일본 열도가 침몰할 때 단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주저하지 않고 백제관음상을 선택 하겠다”

일본 나라현의 법흥사에 보관돼 있는 백제관음상을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이라 경탄했던 프랑스의 지성 앙드레 말로(1901-1976)는 일찍이 인류가 남긴 방대한 예술작품을 간직해 온 박물관에 크게 주목했다. 실제 박물관에 들어올 수 있는 예술작품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진 복제기술의 발달로 도록이라는 인쇄물을 통해 박물관에서보

다 더 많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앙드레 말로는 ‘상상의 박물관’이라는 열린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바이흐로 지금은 한 발 더 나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대다수 미술관들이 온라인으로 전시 관람을 유도하는 등 ‘가상의 박물관’이 대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시 문을 닫은 미술관들의 대안인 온라인 미술관은 선명한 화질과 내 손안의 감상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여전히 아쉬다. 미술관에서 화가가 붓글씨를 볼 때 같은 생생함에 숨막힐 듯했던 현장의 감동과 전율은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앙드레 말로의 저서이기도 한 ‘상상의 박물관’의 표지화인 다비트 테니르스2세(1610-1690)의 ‘브뤼셀 회화관의 레오폴트 빌헬름 대공’ (1647년 경)은 빌헬름 대공이 수집한 그림들을 모아놓은 개인 갤러리를 그린 그림이다. 당시 바로크 시대 유럽의 정쟁한 화가들의 걸



다비트 테니르스2세 작 ‘브뤼셀 ...’

작들이 갤러리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시절엔 개인의 컬렉션을 한 권의 도록에 집대성하거나 아카이브로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그림 속에 그림을 그려 넣었는 것이다.

개인의 회화 갤러리에서 박물관, 도록, 온라인 전시 등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시형태까지 등장한 시점이다. 향후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시련을 딛고 인류의 지혜가 열여갈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 광산경제백신회의

민·관·산·학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협의체

연대의 힘은 강합니다 코로나19 충분히 이깁니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기업·상인회·금융기관·시민단체 등 광산구 경제 분야 대표자 등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활동합니다.

- ▶ 긴급구호 금융지원
- ▶ 중소기업 비상대응
- ▶ 소상공인·자영업자 기(氣) 살리기
- ▶ 경제활력증진 캠페인

